

수멜라 수도원의 절경
Sumela Monastery

Intimations of Byzantium

아나톨리아에서 카프카스까지, 비잔틴 제국의 자취

우리가 동(東)로마 제국이라 부르는 비잔틴 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했고 건축술이 뛰어난 곳이었다. 아나톨리아 고원과 카프카스 산맥 곳곳에 숨어 있는 비잔틴 유적들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과거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다.

It was one of the greatest, most diverse empires the world has ever seen, with architectural achievements to match. But while some Byzantine masterpieces are big tourist draws, many have slipped into undeserved obscurity. For the intrepid, the wonders of Byzantium await.

신앙심의 깊이를 땀방울의 양으로 잴 수 있는 것이라면 수멜라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독실한 신자일 것이다. 이 유서 깊은 수도원으로 가는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노라면 묵직한 발걸음과 가쁜 숨소리에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요함은 깨져 버린다. 하지만 축축하게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분은 더 상쾌해진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오르다 보면 숨어 있던 수도원이 눈앞에 나타난다. 아무것도 없는 가파른 절벽에 들어앉은 수도원을 보노라면 아찔하고 위태로운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고 이내 신성한 공간을 자연의 틀 안에 녹아내려 했던 비잔틴의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티베트의 불교 사원처럼 형형색색으로 쌓아 올린 수멜라 수도원의 프레스코 벽화다. 몇 세기 동안 폰틱의 안개와 바람에 노출되다 보니 프레스코 벽화도 빛이 바래고 금이 갔다. 수도사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비잔틴 제국 아나톨리아 숲속의 고요한 낙원에 거주하던 그 시절엔 이 그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지 그저 상상만 해볼 따름이다.

숨겨진 보석 수멜라 수도원은 흑해 연안에 있는 인구 20만의 도시 트라브존에서 45분 거리에 있다. 그런데도 하기아 소피아 사원이나 콘스탄티노플 성벽 같은 이스탄불의 이름 높은 비잔틴 유

If piety were measured in drops of sweat, then the monks of Sumela would have been as devout as they come. Rising along the steep path to this ancient monastery, our huffs and puffs shattered the rural quiet as we tramped through lush green forests, the dampness of the breeze cool on our faces; each draft of air more refreshing than the last. And then it appeared; the hidden monastery, tucked inside a bare cliff, its stunning position reaffirming the Byzantine desire to merge their sacred sites with the contours of the natural world.

More extraordinary, however, were the frescoes that decorated Sumela's walls, vividly stacked like those of a Tibetan Buddhist monastery. Centuries of Pontic fogs and wind had left them faded and gouged. We could only imagine how magnificent they were back when the monks still inhabited this forested paradise in the vanished world of Byzantine Anatolia.

Hidden Treasure Although Sumela is just 45 minutes from Trabzon, a city of 275,000 on Turkey's Black Sea coast, this architectural masterpiece remains unknown to most tourists, who know only of major Byzantine sites in Istanbul

적에 비하면 건축과 종교 예술의 걸작이라 할 만한 이 수도원은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아나톨리아 지역과 카프카스 산맥 깊숙한 곳에는 수멜라 수도원 같은 국보급 유적지들이 많아서 천년 넘게 존재해 온 위대한 국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거기나긴 역사만큼이나 비잔틴 제국에는 다양함이 공존했다. 공식 언어는 그리스어였지만 콘스탄티노플 거리를 거닐면 '전 세계 72개 언어'를 전부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유대계 상인과 러시아의 모피사냥꾼, 이탈리아의 해상무역상들이 모두 이곳을 드나들었다. 사나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황제의 호위를 맡았고, 아나톨리아 기병대로 이름을 드높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비잔틴 군대에서도 최고로 손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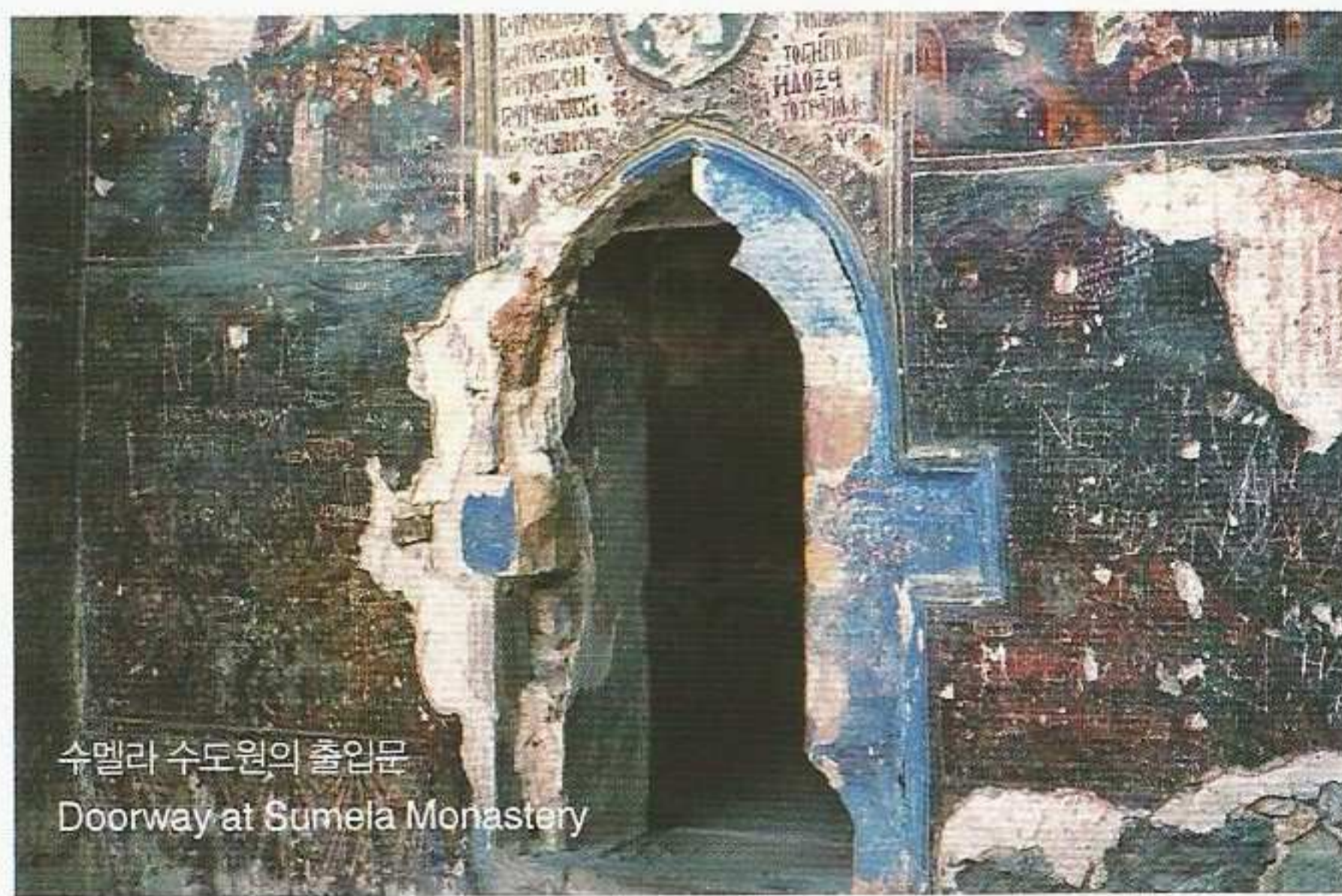
비잔틴 제국과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그리스, 아르메니아, 그루지아는 적대적 관계일 때가 많았는데, 거칠고 험한 아나톨리아의 지형도 한몫을 했다. 불모의 황무지와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황폐한 땅 곳곳에 세워진 초소는 현지 영주들의 세력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을 달리하며 분쟁에 휘말렸다. 또한 바스푸라칸의 아르콘, 바그라티오니 가문, 라즈와 아브하즈의 왕들처럼 이국적인 이름의 통치자들이 가득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갈등 속에서도 이들은 기독교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문화를 공유했다. 사실상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안드레아가 테오토코스(하나님의 어머니)의 성상을 가지고 그루지아에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종교가 실질적으로 전파된 것은 그로부터 3세기 후에 카파도키아의 성 니노라는 여자 성인의 복음 덕분이었다. 모계사회인 그루지아에서는 지금도 성모 숭상을 특히 중요시한다. 그리스 아토스 산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여전히 비잔틴 의식과 11세기에 작성된 헌장을 따르는 수도원들이 많다. 이 수도원들에 있는 유명한 성상 중 하나가 그루지아인들이 헌납한 이 비론 수도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테오토코스 성상이다.

like Hagia Sophia or the great land walls. Yet deep in Anatolia and the Caucasus one finds myriad treasures like Sumela, which attest to the great commonwealth that existed for over a millennium. The Byzantine Empire was marked by diversity. Though Greek was the official language, it was said that one could hear "all of the world's 72 languages" in Constantinople's streets. Jewish traders, Russian trappers and Italian sea merchants were present. Fierce Scandinavians marched in the emperor's guard, and Armenians, those famed Anatolian cavalrymen, were among the Byzantine army's finest soldiers.

Relations between the Byzantine state and eastern Anatolian Greeks, Armenians and Georgians were often adversarial, in part because of Anatolia's untamable geography. This desolate land of arid plains and mountain ridges lent itself to the machinations of local lords and their dueling, shifting interests, forging a history replete with exotically named rulers such as the Archons of Vaspurakan, the House of Bagrationi and the Kings of the Laz and Abkhazia.

Although relations were often turbulent, a common culture was created through Christianity. Georgia and Armenia are among the world's oldest Christian countries. The Apostle Andrew visited Georgia, legend says, bearing the divinely-created icon of the Theotokos (Mother of God). The new religion really spread three centuries later with the preaching of a female saint, Nino of Cappadocia. Today, the veneration of the Mother of God remains vital in matriarchal Georgia; one of the most famous icons on Greece's Mount Athos, that isolated monastic community, is the "miracle-working" icon of the Theotokos in the Georgian-endowed Iviron Monastery.



수멜라 수도원의 출입문
Doorway at Sumela Monastery



이스탄불 카리에 박물관 천장의 모자이크 세공
Ceiling mosaic at Kariye Museum, Istanb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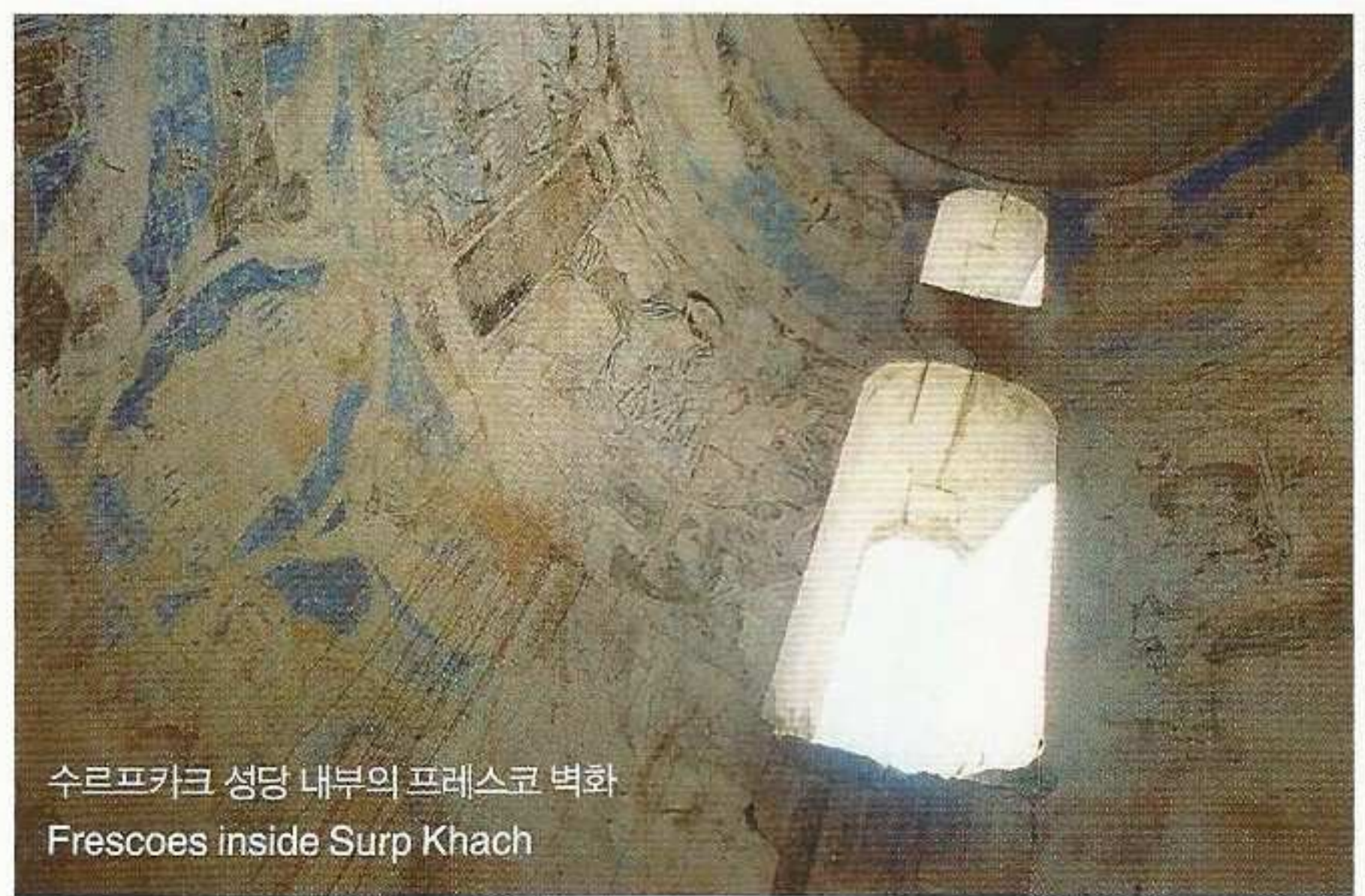
터키의 유프라테스강 계곡은 오랜 역사를 일깨워 과거의 영혼들을 불러내는 듯하다. 강은 위대한 문명 전과 후에도 그랬듯, 변함없이 비잔틴 제국을 유유히 흘러갔다.

The Euphrates River Valley conjures up the ghosts of histories long departed. The river flowed through Byzantium as it did through civilizations before and after.



터키 동쪽 반 호수에 위치한 수르프키크 성당
Surp Khach, a church on Lake Van, Turkey

© Kunz Wolfgang / Bilderberg



수르프키크 성당 내부의 프레스코 벽화
Frescoes inside Surp Khach

© Knoll Georg / Bilderberg

아나톨리아를 유유히 흐르는 아라강은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며 끊임없이 변천하는 비잔틴 제국의 권력과 행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The Aras River runs through Anatolia, whose mesmerizing landscape formed the background for the shifting power and fortunes within the diverse Byzantine Empire.

전쟁으로 얻은 유산 전쟁과 화합의 역동성은 스페티스코벨리 성당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의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인근에서 불가르 군대의 공격을 받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 바질 2세는 아르메니아 호위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021년, 바질 2세는 그루지야를 침공했다. 당시 그루지야는 아나톨리아 평원의 고집스런 그리스 족장들과 동맹을 맺을 때가 많아 그의 심기를 자주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질 2세는 그루지야의 조르지 1세를 진압한 뒤,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므츠헤타의 스페티스코벨리 성당 건립을 위해 거액을 희사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스페티스코벨리 성당은 장엄한 동굴 같은 구조로 이곳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을 그야말로 삼켜버릴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휘몰아치는 절벽 높은 곳에 올라앉은 조금 작은 규모의 디에바리 성당은 므트크바리와 아라그비 강이 만나는 합류점을 굽어보고 있다. 디에바리 성당 역시 자연과 건축을 융화시킨 비잔틴 문화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산이다.

이 지역이 공유하는 아나톨리아의 기독교 유산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터키 동쪽 반 호수의 아크다마르 섬에 있는 10세기 아르메니아 성당, 수르프카크다. 한때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위협에 처하기도 했지만, 얼마전에 터키 정부에서 150만 달러를 들여 복원함으로써 다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아르즈루니 왕실이 아크다마르에서 이곳을 통치한 12세기에는 궁궐과 포구 그리고 성당 몇 군데가 있었다.

그런 웅장한 건축물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수르프카크뿐이다. 잔물결이 이는 호수의 섬에 고요하게 자리한 성당의 모습은 한편에 드리운 절벽, 근처에 있는 숲속의 수도원 수멜라와 함께 절경을 이룬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석조 건축술인데, 석조 건축과 장식 예술은 아르메니아가 명성을 떨친 분야이기도 하다. 수르프카크의 전면엔 주제별로 나눈 구약성서의 여러 장면들과 노동이나 사냥, 놀이와 포도 수확 같은 일상의 모습을 부조로 새겨 놓았다. 이런 이미지들은 아나톨리아와 카프카스에 세운 웅장한 비잔틴 건축이 현실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이었음을 알려준다. 상상력과 용기를 가진 여행가라면 지금도 이 위대한 문화를 느낄 수 있을 터이다. ● 글 크리스텔리소

The Spoils of War The dynamic of war and cooperation is exemplified in the story of Svetitskhoveli. In 1021, a few years after his Armenian guard had saved him from Bulgar forces near modern-day Plovdiv, Bulgaria, Byzantine Emperor Basil II marched on the rebellious Georgians, who were frequent allies of the insubordinate Greek clan chiefs. After defeating Georgian King Giorgi I, Basil funded Georgia's spectacular Svetitskhoveli Cathedral, set in the medieval capital of Mtskheta, famed burial place of Georgian kings.

Today, Svetitskhoveli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s solemn, cavernous structure practically swallowing up the visitor. Above, on a windy bluff overlooking the confluence of the rivers Mtkvari and Aragvi, is the smaller church of Jvari — another embodiment of the Byzantine passion for blending architecture with nature.

The common Anatolian Christian heritage is exemplified again in Surp Khach, a 10th-century Armenian church on Akdamar Island, in eastern Turkey's Lake Van. While Turkish-Armenian political antagonisms had imperiled the future of Surp Khach, the Turkish government's recently concluded US\$1.5 million restoration has saved it for visitors. In the 12th century, when the Arzruni royal family ruled from Akdamar, a palace, harbor and several churches stood there.

Of these grand structures, only Surp Khach survives, its serene setting on a rippling lake complementing the cliff side and the forested Sumela nearby. Most magnificent is its stonework, something for which Armenians were renowned. The facade of Surp Khach depicts, in deep relief, thematically grouped scenes from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such everyday activities as hunting and harvesting. These images remind us that within the Byzantine structures of Anatolia and the Caucasus existed a real and dynamic world — a world whose fabulous relics remain accessible to the imaginative traveler even today. ● By Chris Deliso



대한항공은 이스탄불로 주 4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Istanbul four times a week.

● **여행 시기** 아나톨리아와 카프카스의 겨울은 몹시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 반면에 여름은 찌는 듯이 덥지만, 흑해 연안은 온화한 편이다.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수온이 가장 따뜻한 9월이다. 초가을이면 트빌리시 주변에 아름다운 황금빛이 감돌고, 산에도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다. 봄에는 반(Van) 호수 주변의 골짜기에 난과 앵초와 붓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색채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 **찾아가는 길** 이스탄불에서는 트라브존과 반 그리고 트빌리시까지 정기항공편을 운항한다. 트라브존과 반은 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버스로는 13~15시간이 걸린다. 물론 렌터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바이에서도 트빌리시까지 매일 비행기가 뜨고, 트라브존으로도 정기항공편을 운항한다.

● **둘러볼 곳** 터키의 흑해는 에게 해나 지중해 쪽 리조트보다 관광객이 적어 한산하다. 트라브존과 삼순, 리제 같은 연안 도시에서는 진정한 터키의 일상과 신선한 생선 그리고 눈부시게 푸른

자연을 접할 수 있다. 트라브존에도 돌아볼 곳이 많은데 비잔틴의 벽들과 하기아소피아 성당, 오스만 사원, 현대 터키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의 여름별장 등이 유명하다. 털이 많고 물을 좋아하며 눈동자 색이 한쪽은 황색이고 한쪽은 푸른색인 고양이로 유명한 반에서는, 터키에서 가장 높고 노아의 방주가 표착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아라라트 산(약 5100미터 이상)의 오지를 찾아가 볼 만하다. 12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므츠헤타와 그루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는 매력 넘치는 구도시와 생기발랄한 밤문화 그리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자랑이다. 운 좋게 그루지아의 저녁 파티인 수프라에 초대를 받는다면 4~5가지 코스의 맛있는 전통 음식에 독한 그루지아 와인과 장황한 건배사가 곁들여질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게 좋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카프카스 산에서 그루지아 군사도로를 타고 카즈베기(트빌리시에서 3~5시간 거리)까지 자동차 여행을 해 보자. 3500미터 높이에서 숨 막힐 듯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WHEN TO GO** Winters in Anatolia and the Caucasus can be frigid and snowy. Summers can get scorching hot, though the Black Sea coast is more temperate. September is ideal for swimmers, as the waters are warmest then. There is a beautiful golden glow around Tbilisi in early fall, when the leaves in the mountains start turning red and gold. In the spring, the hills around Lake Van explode with the color of millions of orchids, primulas and irises.

● **GETTING THERE** From Istanbul, regular flights go to Trabzon and Van, as well as to Tbilisi. Trabzon and Van are connected by a major road; the bus takes 13-15 hours, or you can rent a car. From Dubai, there is a daily flight to Tbilisi, and regular flights to Trabzon also.

● **IN THE AREA** Turkey's pristine Black Sea beaches see few tourists compared to the Aegean and Mediterranean resorts. In coastal towns like Trabzon, Samsun and Rize, visitors can expect authentic Turkish life, fresh fish and wonderfully lush nature. The Turkish Black Sea highlands, where tea is cultivat-

ed, are home to the Laz, a unique Georgian-related people descended from the ancient Kingdom of Colchis (famed destination for Jason and the Argonauts in their quest for the Golden Fleece). Trabzon has many things to see, including the Byzantine walls and former church of Hagia Sophia and the summer palace of Mustafa Kemal Ataturk, father of modern Turkey. Van, famous for its fluffy, water-loving cats with one amber and one blue eye, is also a jumping-off point for Mount Ararat, Turkey's highest peak (a little over 5,100m) and the legendary repository of Noah's Ark. Aside from Mtskheta, a 12km drive from Tbilisi, the Georgian capital boasts a fascinating old town, lively nightlife and friendly people: if you are lucky enough to be invited to a *supra* — a Georgian dinner party — be prepared for lots of potent wine, and long, elaborate toasting to accompany the delicious cuisine — usually, four or five courses of it. If you have time, the drive through the Caucasus Mountains to Kazbegi (3-5 hours from Tbilisi) along the Georgian Military Highway features superb, high-altitude views.

